

임실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지난 1일부터 5%→8%, 명절 전후 등 10% 상향조정

임실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권면금액 할인율을 5%에서 8%로 인상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임실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소에는 명절 전후 등 특정기간 할인율을 1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 입법 예고한 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날 1일에 맞춰 공포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발행한 임실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통용되는 화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군은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0억원으로 늘려, 임실사랑상품권 이용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이용률이 크게 증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임실군내 가맹점 수는 330개로 임실군 홈페이지를 방문·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가맹점을 더욱 늘려, 상품권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심민군수는 "상품권 할인율을 인상하는 조례가 공포·시행됐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실사랑상품권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착공

총 93억원 들여 약 4400㎡ 규모 음악분수·어린이 물놀이장 등 구성

남원시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기활성을 위해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요천 고수부지에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착공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사업비 총 93억원(도비 43억 원, 시비 50억 원)이 투입되며, 약 4400㎡ 규모에 음악분수, 바닥분수, 어린이 물놀이장 등 수경시설과 친수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은 지난 6월 28일 지방재정부

자심의를 거쳐 9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하천점용허가와 10월 23일 전주시 소재 세움종합건설(대표 안석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본격 착공하여 오는 2020년 6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탄생할 요천수경시설은 주변 관광시설인 광한루원, 남원예촌, 춘향테마파크와 연계해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진영신 남원시 건설과장은 "철저한 현장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한 명품 수경시설로 조성, 남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정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 수상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환경조성 노력 공로

황숙주 순창군수가 최근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54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은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공헌한 지자체장을 엄선하여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특히, 이번 수상은 순창군을 비롯해 부산 동구, 울산광역시 등 전국 3곳만 받게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군수는 '여성이 살기 좋은 순창,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을 목표로, 지난 2014~2018년 군 자체적으로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60개 사업을 선정·추진해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한 실적 등이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순창군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올해 초부터 여성친화도시 연구

컨설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직원교육과 비전 선포식, 군민참여단 발대식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최종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황 군수는 "순창을 전국에서 여성과 아이가 즐거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저를 믿고 함께해준 공직자들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오늘 영광스러운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여성친화도시 순창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북남원IC와 시내 연결도로 개설·다양한 복지정책 호평



남원시는 지난 1일 이환주 시장이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린 2019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주민생활편익 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9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 센터가 주최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앙일보가 후원하였으며, 주민주권을 실천하며 21세기 거버넌스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건강하고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선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6개 분야를 심사해 상위 10%의 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 이환주 시장은 주민생활편익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공적에 따르면 남원시는 북남원IC와 시내 연결도로를 개설해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남원 관문인 백운산 사거리 향교동 공동묘지를 정비해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도로변 불법으로 주차 중인 대형화물차 계도를 위해 화물공

용차고지를 조성하는 등 시민편익을 증진시켰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편한한 쉼터를 제공하였으며, 여성과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 추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남원일반산업단지조성, 세대별 복지서비스 강화, 대중교통 환경개선 등 34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제, 교육,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편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개인상이 아니라 남원시민들과 남원시 공직자 모두가 시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맘스앤 베이비 요리교실 운영

11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해피니스센터서 무료

순창군보건요원은 지난 1일 해피니스센터 1층 교육실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맘스앤베이비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요리교실은 11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해피니스센터 1층 교육실에서 5회에 걸쳐 진행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모집인원 15명 모두 선착순 마감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요리교실은 임산부와 영·유아 등 대상으로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샌드위치, 생과일 아기젤리, 이유식, 주먹밥, 아기와일와를 조리시연과 요리맛보기,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요리교실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들은 아이들과 요리를 통한 교감에 모두 만족했으며, 푸드테라피 전

문강사의 진행에 따라 요리과정을 모두 눈에 담으려고 교육시간내내 집중했다.

요리교실에 참석한 김모씨는 "요리를 통해 아이와 소통하는 점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아이와 소통을 통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리교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피니스센터(063-650-523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피니스센터에서는 육아맘 공식블로그를 운영하여 육아정보공유 및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역 매아리

남원사랑 화합의 날 개최

남원시는 지난 1일 시청 강당에서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으로 연말 안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도 시정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부서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과 예산이 거의 확정된 만큼 내년도 사업에 대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재정지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공모사업 선정'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어 이 시장은 2019년 시정 외부 평가는 '농사에 비유하면 수확'과 같은 것이라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가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 추진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이며 남원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남원사랑 화합의 날' 시상식도 있었다. ▲지리산국립공원 김창순 과장, 김경희 ▲박길식 주생체천마을 이장 ▲장병목 금지 석장마을 이장 ▲정대식 죽향동 청년회 ▲박병훈 남원시민경찰연합회 ▲이명자 도동동 43동장 ▲염정수 남원시립국악단 단무장, ▲장진용 농악보존회 단원, ▲김영철(대강면) 씨 등이 수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회장 임학래)는 지난 1일 순창 장안감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노홍래 순창부군수, 신정 이 순창군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희생자 유가족,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위령제는 동계교회 최영철 목사의 성경봉독과 장덕사 청안스님의 독경, 추도사, 조시낭독,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임학래 지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어려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노홍래 부군수는 "호국영령들의 뜨거웠던 자유수호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호국영령들의 영정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순창의 새로운 역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